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3. 27(금)

중동전쟁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채널 가동

- 산업부장관, 6개 경제단체와 중동전쟁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 담합, 매점매석 등 공급망 교란 행위는 엄정 대응할 계획
- 대체 공급선 발굴, 면밀한 재고 관리 등 공급망 안정화 노력 당부
- 자율적 5부제, 유연근무 등 에너지절약에 동참 당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3월 27일(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으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요 관리 관련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동전쟁 관련 경제단체간담회 개요 >

- ▶ (일자) '26.3.27.(금) 10:00~11:00 /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EC룸
- ▶ (참석) 산업통상부 장관, 경제단체(6개) 회장, 상근부회장 등*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부는 6개 경제단체에 ❶대체 공급선 발굴, 재고 현황 파악 등 공급망 안정화 노력, ❷담합, 매점매석 등 공급망 교란 행위 방지, ❸자율적 5부제, 유연근무 등 에너지절약 동참 등을 당부하고, 비축유의 전략적 활용, 나프타 국외도입 시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위기 상황에서 일부 기업의 개별이익만을 생각하는 반공동체적인 일탈 행위로 전체 기업의 얼굴에 먹칠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공급망을 교란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전시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서 중대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급망 관리와 에너지 절약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의 가교역할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애로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원스톱 창구인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은 기업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항상 위기를 계기로 재편되어왔다”며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M.AX(Manufacturing.AX)를 통한 산업 대전환과 지역 중심 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대표 전화(1670-7072), 대표 이메일(ask16707072@korea.kr)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홍승범 (044-203-4214)



1. 추진 배경

- 중동전쟁 장기화(2.28~)로 에너지 수급 및 초산업 공급망 위기 확산
→ 수급 원활화 등 관련 경제단체와 협업 필요
- 경제단체들과 ‘중동전쟁 산업·무역·통상·자원 대응본부(본부장: 차관)’
간 상시 소통 필요

2. 회의 개요

- 일시: 3.27일(금) 10:00~11:00
- 장소: 대한상의 EC룸
- 참석: 정부(산업부 장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장 등)
6개 경제단체*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진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박일준), 한국경제인협회(김창범),
한국무역협회(이인호), 한국경영자총협회(이동근), 중소기업중앙회(오기웅)

【 세부 시간계획 】

시간		진행내용	비고
10:00 ~ 10:03	(3')	모두발언	산업부 장관
10:03 ~ 10:08	(5')	중동전쟁 관련 주요 이슈	산업부
10:08 ~ 10:58	(50')	참석자 간 토의	참석자
10:58 ~ 11:00	(2')	마무리발언	산업부 장관

※ 모두발언까지 공개